"불교문학은 자기를 찾는 작업"

문화훈장 寶冠 받은 이원섭 시인

지난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훈장 '보관(寶冠)'을 받은 원로 시인 이원섭선생(71세). 교계에서는 수많은 저서 역서를 낸 재야 불교학자이며 정신적인 불교운동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평생을 시창작과 경전 및 불교교리를 현대적으로 새겨 널리 일깨워온 그를 만나 불교와 문학에 대해 들었다. 바로 내년이 '문학의 해'여서 특히 그의 문학관은 큰 울림을 준다.

수요 인터뷰

깨달음서 禪詩나와…불보살 문자찬탄은 신행

20년동안 절필…경전·선시번역 교리해설 몰두

수령소식 주위에 안알려

—훈장을 받으신 소감부터.

▲최근 20년동안 불교일만 매달려와 실질적으로 문단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름만 원로였을 뿐 그동안 한 일이 없어서 사실 문체부로부터 훈장소식을 전해 듣고는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무척 고민했습니다. 상도 받을만 할 때 받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고 또 문인이 훈장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훈장을 사양하면 괜히 말썽이 생겨 더 소란스러울 것도 같고해서 그냥 받았지요. 수령식날도 가족에게조차 얘기 않고 혼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詩作생활을 떠나 계셨다고 하셨는데 시인으로 20년이나 절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는 내 속에서 절실한 것이 보이고 분출해 나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먼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뭘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선시는 나 스스로 아직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시는 언어분별을 초월한 종교적 체험의 결정체인데 깨달음의 체험없이 어떻게 선시를 단 한줄이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생기면 저절로 선시가 써지겠지요.

그리고 꼭 쓰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쓰고 싶을때 쓰게되면 쓰고… 그런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지요.

—요즘 불교문학의 이름으로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교문학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교적인 소재로 문학을 했다고 해서 다 불교문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진실은 자기를 찾는 작업, 즉 자기구명(自己究明)입니다. 경전이나 철학서적등을 통해 외부에서 배우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보살님 선사에 대한 찬가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행의 영역이지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더구나 이상스런 말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말의 유희일 뿐이지 선문학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상상만해서 쓰는 문학이 불교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진실한 자기를 보는 '자기탐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불교문학관은 어떤것인지요.

▲글쎄요. 관념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문학하는 이는 불교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빚어낸 산물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불교신앙과 자신의 마음이 부딪쳐 빚어지는 갈등도 포함되겠지요.

—선생님께서는 50세 이후부터는 경전번역 그리고 교리해설 선시번역등 불교일에만 열정을 보여오셨습니다. 순수문학을 뒤로 하신채 그일에 전념하신 선생님의 삶이 궁금합니다.

▲나는 천성이 종교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 명저라고 할수 있는 불교 유교 기독교의 성전들을 탐독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속에서 만난 것이 불교였습니다. 많은 불교서적을 섭렵하면서 신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혜화전문에서 불교학까지 전공하게 됐지요.

그동안 〈법화경〉 〈법구경〉을 번역했고 선시 공안등을 나름대로 천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일 자체가 내 마음 깊이 욕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져 시간가는 줄 모르며 20년을 해온 셈이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법화경〉번역 이었습니다. 무슨일이든 정성을 기울입니다만 당시 번역의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문학성을 발휘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의역했지요. 그러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그 장중한 맛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한자어를 보다 쉽게 살려나갔습니다.

한때 〈한글 성경〉을 작업한 문익환목사가 검토해보라고 했을때 어휘사용에서 종교서적으로의 장중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쪽의 정서때문인지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문학 '자기탐구'에서 출발

—선생님, 내년은 '문학의 해'입니다. 문단원로로서 한말씀 들려 주시지요.

▲내가 문학을 시작한게 48년입니다. 나이를 먹다보니 80년대 중반까지는 문인협회 부회장, 현대시인협회 회장이라는 감투도 씌워주더군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요즘 문학은 관점을 지나치게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작가혼을 볼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확연히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남의 일과 밖의 일에는 준엄한 '판사'이면서도 자기일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변호사'가 되려하는 속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문학은 더 깊이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하고 계신 일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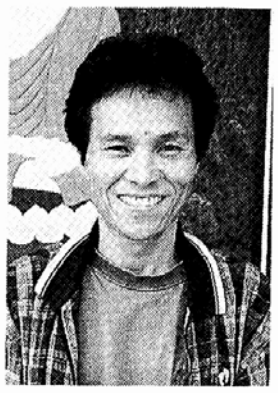
▲5년전부터 천태대사의 〈법화현의〉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석까지 달다보니 분량이 꽤 됩니다. 현재 1만5천매 정도 진행됐지요.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나의 수행일기

정부기 〈작곡가·중앙대 교수〉 上



먼 과거의 어느날,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있었다. 가족이 있는 아버님께서 스님이 되신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동네의 많은 분들이 만류하였건만, 아버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서울 삼각산에 있는 절로 훨훨 날아가버린 것이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 고모님댁에서 기거하고 있던 나는 주말이면 고모님과 함께 우이동가는 버스를 타고 삼각산으로 발걸음을 향하곤 하였다. 진입로가 뚜렷하지 않았고 경사가 급한 산길이라 목적지를 찾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산 중턱에 위치한 영산법화사 삼각산 도량은 토담집이 한채 있었고 그뒤에 돌부처님이 한분 서 계셨다.

경치는 절경이었으나 알 수 없는 고요함이 한껏 펼쳐있는 분위기였으며 몇분의 수행자만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다. 첫 방문때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을 전하고 아버님을 찾았으나 나무를 하러 가셨다고 수행자 한분이 말씀을 해 주셨다.

오선지 염불가락 독일서 인정받아

어느날 입산한 아버지 따라 '작은스님' 역할도

얼마 후 아버님을 만났으나 아버님 같지 않으신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길게 기르셨던 검은 머리는 어디론가 다 날아가버렸고 남루한 옷차림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계셨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서글픔과 알 수 없는 쓸쓸함 뿐이었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된다. 내게 있어서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후 눈이 오는 겨울날에도 신발에 새끼줄을 매고 산을 올라 아버님을 찾은 적이 있고,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일, 그때 먹었던 공양 등을 잊을 수가 없다.

그후 큰스님께 계를 받으시고 진해에서 수행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우리동네 뒷산에 조그만 집을 사시어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작은 도량을 마련하셨다. (영산법화사 모은도량)

2백여호가 사는 동네였으나 면소재지였기 때문에 작은 마을은 아니었다. 우리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인연 있던 모든 분들이 우리 사찰의 신도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어려운 일이나 궂은 일 그리고 농사까지 지으시며 수행생활을 계속하셨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던 나는 집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나의 꿈이며, 희망이었다. 도량을 마련하신 후 방학이 되어 고향에 갔을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 그것은 농사일이외에 법회에 참석하는 일이었다. 법회는 아버님과 친척들 그리고 몇명의 집안식구들과 동네사람들이 모여 목탁을 치며 열심히 법화경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시간 반가량이 소요되었다. 할만한 때도 있었으나 죄없는 목탁에게 반항한 적도 있었으며 나 자신을 잊고 지루함도 잊고 시간도 잊고 모든 것을 잊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형제에게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고 아버님이 출타하실 때에는 큰스님 대신 작은스님 역할까지 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번의 쓴잔을 마신 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성장과정에서 내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중놈'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으며 넉넉하지 못한 집안형편과 연로하신 부모님, 부모님 곁을 떠나 있었던 것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모든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창작에 있어서 그때의 상황은 민족적이며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기였으며 보다 우리의 것을 찾던 시기였다.

그때 서울에서 살았던 학생들에게는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것에 접근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나 아버님과 함께 했던 법회 때의 선율들이 내 머리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곡을 쓴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일찌기 고향을 버리고 얻은 나의 향수병이 염불가락을 오선지 위에 쉽게 뿌려주었다.

그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중에 아버님은 열반하셨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식만 들어야 했다. 아버님의 공덕으로 유학을 마친후 이십대의 나이에 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자신보다는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 하였으며 친구로서 선배로서 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노력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음악에 열의가 있으신 수법스님, 정덕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파랑새 울고"(초파일 송가)를 계기로 찬불가를 작곡하기에 이르렀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본지 50호 14면 봉원사 광고 중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 박송암 스님)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박송암 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잉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자풍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불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528(우만)

불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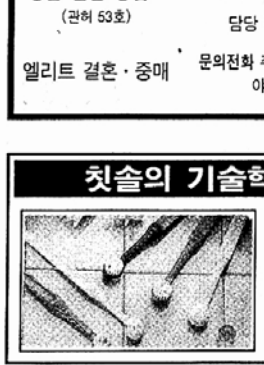
■ 계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탑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요사채 1층 방 3 (35평형)
• 향후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증축 계획
• 신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사찰 경내까지 사찰 진입 가능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

귀의 삼보하옵고
70된 노거사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불법홍포에 원력을 세운 바 충주 계명산에 사찰건립최적지를 발견하고 일심으로 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굴본존불, 해수관음, 아미타불, 5층석탑, 요사채가 완공이 되어 최초계획의 70%가 완성되었으나 가장 중심이 될 대웅전 건립을 앞두고 불사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사완성에 참여하실 스님, 독지가」를 구하오니 인연 닿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참여조건을 몇가지로 의논 드리겠습니다.
* 사찰에 주석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 0441-851-3866(집:조석) / 0441-853-2896(사찰:12시)

20년 전통의 모범업소
행운 결혼 상담소
(관허 53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엘리트 결혼 · 중매
문의전화 주간 (02)960-2434
야간 (0343)47-1046
초혼 : 의사, 박사, 판 · 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재혼 :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 해업성혼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 (영·수) 「비디오가정교사」 특별제공 (기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창안청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